

2012 JAN·FEB Vol.91 01·02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희망의 2012,
신뢰받는 의료
고객만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연중기획
암!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3
소아암

특별한 만남 소아암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

의학정보 1
소아암



JCI

World Best Safety, Global INHA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노을 빛이 아름다운 것은

詩 / 윤용기

기나긴 밤 어둠의 자락에서 이슬처럼 서성대다
꼭 참았던 울음 터 드리듯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의 광염

동고동락으로 진종일 내 속의 끓는 피와 함께
앞만 보며 달리는 100미터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 달려온 시간 후에”
풀잎에 맺힌 새벽 이슬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노을, 노을 빛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 소중한 하루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잔잔하게 일렁이는 소슬바람에도
말없이 때를 알고 붉게 불타는
저 가을 산의 단풍도 부푼 희망 가득 앓고
동해에서 솟아오르는 저 태양도 때를 알고 서산에 넘어가는
“저녁, 저녁 노을 빛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줄기 소망의 꿈틀거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소망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지설명 | 노랑리본 캠페인 : 노랑 소아암 어린이의 희망 Reborn 건강하게 다시 태어남 + 희망을 위한 나눔

국내 매년 소아암 환자 약 1,200명 발생(15세 미만), 현재 치료중인 소아암 환자 10,000명 이상

당신의 나눔이 소아암 어린이를 건강히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작은 희망 더하기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바로가기 : www.hello_reborn.org

2012. 01+02

CONTENTS

Jan. Feb Vol. 91

02 행복을 전하는 글 노을 빛이 아름다운 것은

04 신년사 다 함께하는 경영

연중기획_ 암!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3 소아암

06 특별한 만남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

09 의학정보 1 소아암

12 의학정보 2 초기 뚜렷한 증상이 없는 혈액암

14 건강책갈피 여드름과 흉터

16 부서탐방 인하대병원 혈관검사실

18 옹따들의 새해 한마디 옹따 교직원들의 새해 소망과 덕담

20 CPR 교육소개 심장마비와 심폐소생술

22 지역사회 암사업 'TOGETHER' 함께 하는 간호부

24 의료봉사 후기 인도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와서

27 사회복지 기금 모음 행복한 기다림

28 희망천사 릴레이 김평숙 님의 더불어 행복(삶)

30 특목약물상담 대상포진 예방으로수두백신 대체 NO!!

31 의료인 검진안내 인하대병원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 안내

32 협력병원탐방 아이본산부인과 / 마디정형외과

33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파랑새 소식

38 알립니다 언론보도 / 친절직원 소개 / Global Inha / 발전기금

무료공개강좌 / 진료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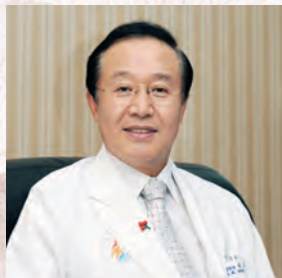
다 함께하는 경영

인하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안고
새로 떠오르는 태양을 맞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인하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한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국가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보다 심화되었던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무관심과 배척으로 인한 기득권층과의 갈등, 청년실업, 반값 대학 등록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는 등, 복잡적이면서 다양한 생각의 차이와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신관신축사업, 연구중심병원 기반구축, 그리고 비전2020발전전략 수립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신관신축사업은 올 3월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행정기관 심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중심병원 기반구축은 지난 12월 연구중심병원 성장지원을 위한 R&D 전략기획 과제로 선정됨으로써 한 단계 진전하였고, 비전2020발전전략 수립은 '더 나은 미래의 꿈을 위한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준비 중에 있어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쳐 올 5월 발표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병원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새로운 경영환경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3%대의 저성장 전망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경제가 준 비상경제 상황이며, 양대(兩大) 선거 등으로 진료일수가 5일이나 줄어들어 의료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증환자가 초대형병원에 집중되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확대제도 등 삼급종합병원 수요억제 정책과, 의약품 실거래가제 유예 등으로 경영수지를 크게 압박하는 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3개 대형병원이 지난해에 총 900병상을 신설 확장하고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 우리병원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 비상경영체제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저는 금년도 경영방침 세 가지를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쟁력을 위한 의료의 질 향상입니다.

병원 경쟁력의 본질은 신뢰받는 의료에 있고, 신뢰받는 의료는 진료의 질과 환자와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병원 의료진은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의료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교수 개개인의 강점과 특수클리닉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홍보하여 환자로부터 신뢰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의료진도 환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정성을 다함으로써, 신뢰받는 의사, 존경 받는 의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JCI 및 의료기관인증질 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질 지표는 언론에 공개되어 병원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의료의 질 향상과 더불어 고객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즉시 해결하는 서비스 혁신의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차별적인 서비스와 감동을 더하기 위해 '고객지향, 전문성, 혁신성, 신속성, 성과지향' 등의 가치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익성 창출을 위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입니다.

작년에 가치관 형성, '인하 혼(仁荷魂)', Spirit에 대하여 말씀 드린 적이 있으며, 우리 병원의 신관 개원과 더불어 인하 혼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병원은 수익성 확보가 가장 급선무 과제입니다.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인력, 시설, 장비, 연구, 교육 등에 적정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병원은 연구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해당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으며, 이제 투자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병원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경영수지 개선 중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과 수익 및 비용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 손익구조 개선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모든 일에 가치와 효율을 철저히 따져보고 일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경영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

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다면,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금년 5월에 발표할 비전2020발전전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전략이 제시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할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병원은 설립자의 뜻과 시대의 가치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하고, 다 함께 협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은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합니다.

봉사활동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들까지도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갖게 해줍니다. 지역사회공헌 부분에 있어, 그동안 우리 병원은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최근 지역사회에서 우리 병원의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VIP리운지를 포함하여, 인천지역의 CEO를 대상으로 한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통해 우리 병원은 지역사회에서의 평가가 날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우리 병원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성원이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이겨내는 용기와 단호하고 현명한 판단, 동료와의 바른 의사소통이 절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흔히 말하듯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하가족 모두, 올 한해 가슴에 큰 꿈을 품고, 높은 기상과 큰 뜻을 마음껏 펼쳐, 더 나은 미래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 함께 힘차게 전진해 갑시다.

목표가 분명하고 간절하게 소망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의 힘을 믿어봅시다.

임진년 새 아침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2년 1월

인하대학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박 승 립

연중기획
임!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3
소아암

끝까지 그들 편에서 웃음을 주는 남자,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

의학은 과학,
의료행위는 사람냄새 나는 의술로.....

Profil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과정과 전임의 과정을 마쳤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문치료분야는 소아 및 청소년의 혈액질환, 소아암 및 성장 비만 분야이다.

재미있는 동영상을 뒤지고, 펠로우 때 만난 환자의 가족과 형, 아우하며 지낼 줄 아는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는 '인간적인 소통 의술'을 으뜸으로 생각한다.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생물학적 의미에 충실하려 한다.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토털케어하며 기꺼이 그들과 동행한다.

모든 환이들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날을, 또 끝까지 그들 편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를 만났다. 인터뷰 시간에 맞춰 연구실로 들어서자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폭력에 대한 동영상물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특히 우리 소아암을 겪은 아이들은 이런 학생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소아암의 완치율은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그런데 후유증은 남을 수 있고 이런 후유증이 비만, 성장 저해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이 소위 말하는 ‘왕따’라고 하니.....”

김 교수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찾아봐야겠다고.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아이들, 이런 이유로 아이들의 암은 더 가슴 절절한 일이고, 완치가 되어도 노심초사하는 김 교수인데 이런 뉴스를 접하니 숙제 하나를 더 받아든 기분이다.

역지사지, 재미를 담은 소통 의술로

그렇다. 김 교수는 의료진 사이에서도 따뜻한 소유자'로 통한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재미를 더하려 하고, 공감하려 한다. 그래서 김 교수는 새해 과일들과의 회의에서 '통·통·통'을 강조했다. 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이 그것이다. 적당히 회의도 하고 만나야 갈등도 없다고 말한다. 한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으로 서로를 이해해야 환자와 소통하는 길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김 교수는 요즘 유행하는 사회세태를 반영하는 개그프로그램 동영상물도 회의 전 상영하여 한바탕 웃고 회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한다. 의사의 웃음은 성공한 수술 이상으로 환자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김 교수는 알기 때문이야 아닐는지...

또 전공의들에게도 지루한 과제보다는 다이나믹한 동영상 과제를 주는 편이다.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도 동영상을 이용한 과제를 내주는 등 교육매체 시스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여건만 된다면 동영상을 보여주며 동적인 진료를 하고 싶은 것이 김 교수의 바람이기도 하다. 의사라는 딱딱한 이름으로 다가가는 진료보다는 가슴으로 전하고 공유하는 퀄리티 있는 진료를, 재미있는 '개그' 한마디쯤 던질 줄 아는 따뜻한 의사를 김 교수는 후배들에게 바라는 것이다.

치료 후까지 이어지는 평생 주치의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면 불치병으로 알려진 세월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 소아암 치료 수준은 불과 10여년 사이에 세계적 수준으로 급성장해 최근에는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70% 이상의 환자가 완치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한다.

그렇다 해도 막상 내 아이가 암이라면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다. 김 교수는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나쁜 소식' 전하기는 최대한 솔직하게 전하는 편이다. 요즘 의료지식은 의사만의 고유 영역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부분 노출되어 있어 짐작을 하고 오는 부모도 꽤 많은 편이다. 또 믿기지 않아 여기저기 다니다 오는 경우도 있어 그와 같은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받아들인다.

더불어 김 교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치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는 집안에 소아암 환자가 생기면 치료비는 물론 소외될 수 있는 기타 부분까지 생각하는 '토털 케어'를 생각한다.



“일단 소아암 치료과정은 장기전으로 봐야합니다. 2~3년 정도 잡아야 하고 집에서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간호도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받는 주치의나 전문 간호사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야 하죠. 언제 응급상황이 될지 모르는 경우, 또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가능하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 병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치라 함은 질병이 사라지고 정상인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발병률로 된 상태를 말한다.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또 조금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형제자매와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치료 후까지 이어지는 평생주의! 그것이 김 교수가 자처하는 진료철학의 기본이다.

항상 완치가 되고 나도 아쉬움이 남는 김 교수다. 초기에 이렇게 방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아이가 완치하여 성장 후 겪을 정신적 갈등, 치료도중 불가항력으로 잘못되는 경우까지 모든 것이 부족으로 남는다. 김 교수가 생각하는 의사란 병과 싸우는 환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한다. 환자가 이겨내는 과정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함께 한다. 무서운 절망이 오지 않도록 말이다.

편안함이 녹아있는 일상....

김 교수가 의사의 길을 걷게 된 것도 필연이었나 보다. 그는 원래 문과를 선택한 학생이었다. 사회계열에 진학예정이었지만 재수를 하면서 이과로 전향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75학번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어떤 주제(질병 등)에 대해 정리하는 습관이 잘 되어있는 편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고 꼭 모범생은 아니었다. 국립의료원 실습 시절 땀땀(?) 치고 설악산에 갔던 추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며 그때를 곱씹어 보며 절대 후회 안 한다는 얼굴은 어린아이 미소 그대로다.

주변에서 늘 ‘소아과 타입’ 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김 교수다. 그렇다고 이런 주변의 떠밀림 때문에 소아과 의사가 된 것은 아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보기보다 자상하고 세심한 편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래서 미팅 때도 거절을 당한 적은 없었음을 강조한다.

김 교수의 건강 관리법에 특별할 것은 없지만 꼭 지키는 것이 하나 있다. 가능하면 식사 시간을 거르지 않는 것과 점심 식사 후에는 짧더라도 휴식의 시간을 갖자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충전시간이라고나 할까?

“뒤편 특별히 좋다는 것을 마구잡이로 따르지는 않고, 엄격하게 나쁜 음식을 가리지도 않아요. 운동은 테니스와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배드민턴은 전신운동에 좋아 적극 추천하고 싶네요. 저, 어때요? 이만하면 낯선하죠? 배드민턴하고 집사람한테 차 빼기고 걸어서 출퇴근 하면 이렇게 됩니다(웃음).”

지금까지 김 교수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역시 가족을 꼽는다. 부인과 2녀1남을 두고 있는 김 교수는 ‘세여인(캐디 아가씨, 내비게이션 아가씨, 집사람)’의 말을 들으면 인생이 편하다’ 라는 명언(?)을 전하며, 자신은 잘 지킨단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에게 묻는다고 한다. 항상 아파서 얼굴을 찌푸린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 웃을 일이 없어서 싫지 않느냐고 말이다. 김 교수를 만나고 나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쾌하게 나온다. 김 교수처럼 그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다보면 ‘돌’ 이 웃음을 공유할 수 있음을 말이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행위는 좀 더 사람냄새 나는 의술을 펼치고 싶은 김 교수,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는 뛰어난 실력보다 환자를 향해 한 번쯤 웃어주는 의사의 따뜻한 미소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연중기획
 암! 함께 이겨내요
 암시리즈 3
 소아암

암시리즈 연재 순서
 2011년 • 9/10월호 유방암 • 11/12월호 대장암
 2012년 • 1/2월호 소아암 • 3/4월호 위암 • 5/6월호 간암
 • 7/8월호 혈액암 • 9/10월호 폐암 • 11/12월호 갑상선암



소아암 -
 주변의 관심과 사랑은
 소아암 극복의 가장 큰 힘!

김순기 교수 | 소아청소년과
 • 전문분야 :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 진료시간 : 월(오후), 수(오전), 목(오후), 금(오전)
 • 문의 : 소아청소년과 ☎ 032 890 2260

1. 소아암은 어떤 암입니까?

문자 그대로 소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 즉 암입니다. 백혈병이 가장 많고, 이어서 뇌종양, 림프종, 신경모세포종 등이 포함됩니다.

2. 소아암도 나뉘볼 수 있대요?

백혈병, 뇌종양, 림프종, 신경모세포종, 윌름스 종양, 횡문근육종, 골육종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3. 소아암의 발생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암은 매년 10만명당 16명에서 발생합니다. 소아청소년 사망률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첫 번째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4. 소아암은 성인암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질, 분포 및 예후에 있어서 성인과 다릅니다. 성인의 경우 위, 대장, 유방, 질립선 같은 상피세포성 암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하여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 조혈기관의 암인, 백혈병이나 림프종이 많습니다. 소아암의 경우 진단시부터 전신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소아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소아암의 원인은 아직 철저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함께 관련되어 발생합니다. 성인에 비해 소아암의 경우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조직, 즉 조혈, 신경 또는 결합조직(supportive connective tissues)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에는 다양한 물리적 요인, 화학물질 및 미생물 감염이 있습니다.

6. 소아암의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백혈병이나 다른 질환의 골수 전이로 인하여, 빈혈이 생겨 창백하고, 혈소판이 감소하여 출혈을 일으키고, 백혈구감소로 인하여 열이 납니다.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이 3~4주 지속

되는 통증이나 발열이 있을 경우 소아암을 감별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 자라는 종괴, 특히 체중 감소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뇌종양인 경우에는 두통 및 구토를 보이고 특히 새벽에 증상이 심합니다. 복부에서 종괴가 만져진다는지 림프절이 커져 있다는지, 무릎이나 어깨 통증이나 종창이 있을 경우 철저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7.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악성종양이 의심될 경우, 검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환자가 쉽게 따를 수 있는 검사를 하는데, 혈액검사를 하고, 혹의 유무,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음파검사, CT 및 MRI(핵자기 공명영상) 같은 검사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골수검사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합니다.

8. 소아암의 치료 방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아암의 치료는 여러 팀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즉,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병리학자, 암전문의, 외과의, 방사선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분이 함께 관여합니다. 또한 소아암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나라와 대륙이 협력함으로써 경험을 축적하고 나누어서 최적의 치료, 지지요법, 재활 치료를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9. 소아암의 치료 경과와 예후는 어떤가요?

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기 치료 기간입니다. 암이 의심되는 환자는 가능한 빨리 전문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단을 내리고 병기(staging)를 결정해야 한다. 좋은 예후를 가진 소아암의 경우 치료의 강도를 줄여서 치료하고, 예후가 나쁜 암인 경우, 치료 강도를 세게 합니다. 근래는 소아암의 약 70% 이상이 완치됩니다.

10.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어떻게 됩니까?

각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이 각각 다릅니다. 약제에 따라서 뇌의 병증, 심근 손상, 폐섬유화, 체장염이나 청력소실을 일

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치료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간호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간호를 해야 할까요?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당연히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고, 가정에서의 간호도 필요합니다. 백혈구 수치와 관련이 많은 만큼 상황에 따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치료받는 주치의나 전문간호사와 긴밀한 연락을 갖고, 주의사항을 준수하면 잘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접촉을 가능하다면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12. 소아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체중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매일 적어도 3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골고루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단백질 공급도 중요하지만, 채소와 과일도 골고루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담배를 피우지 않고, 또한 흡연의 노출(간접흡연)을 피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 태양의 과도한 노출을 피하고, 햇빛 노출이 많을 경우 선스크린을 사용합니다. 성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을 피하고, 간염에도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마지막으로 소아암에 대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암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잘 이겨내도록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 좋겠습니다. 암을 앓는 가족이 혼자 아니고, 주변에 많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암을 앓고 있는 당사자 뿐 아니라, 약간은 방치된 형제자매와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경인방송 iTVM(90.7MHz) 라디오 종합병원 2011년 8월 12일 방송내용)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인하대병원에 가게 된 것은 큰아이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작은 소아과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간이 부어있다는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였습니다. 처음 소개해 주신 분은 다른 분이셨는데 마침 외래가 없던 날이라서 김순기 교수님께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시고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겠으니 입원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입원해서 검사를 받고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시던 교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울음조차 나오지 않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대체적으로 치료가 쉬운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며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진단을 받고 다른 전문병원에 가라는 주위 분들의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혈액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라는 얘기에 귀를 닫고 교수님께만 의지하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나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또 편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교수님이 계셔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스치듯 말하는 것도 놓치지 않고 다른 분들께 문의도 해보시고 자료도 찾아보시며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번은 아이의 2차 치료가 끝나고 작은아이 때문에 처음 찾았던 동네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아과의 원장님께서 “큰아이 인하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면서요” 하시며 먼저 아는 척을 하시더군요. 저는 놀라서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더니 김순기 교수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일찍 발견하고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은 뭐라 표현하지 못 할 정도로 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감동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또 한번은 다른 아이의 진단받아서 왔던 곳의 선생님 성함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놀랐다고 하더군요. 2년 가까이 되어서 부모님조차 작은 병원 소아과의 선생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기억이 났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우리 환아들은 교수님을 만난 것도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서8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주시고 한가지라도 더 해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서8병동의 간호사 선생님 중에서도 우리 환아들에게 꼭 필요하신 분, 없어서는 안 되는 전문간호사 강희숙선생님,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모회를 만드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모회가 없던 지난 몇 년 동안 수간호사 선생님을 비롯한 서8병동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한 송년회도 매년 해주셨습니다. 부모회가 생겨 올해 행사준비를 직접 해보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삼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김순기 교수님과 강희숙 선생님 그리고 서8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을 믿고 의지하며 치료를 할 것 입니다. 부모회에서 진심을 담아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 인하대병원 백혈병 소아암 부모모임 수호천사회 회장 신정아



성인의 혈액암중 가장 흔한 암은 악성 림프종 (임파선암) 으로, 조직학적인 분류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순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혈액암의 증상

혈액암은 각종 장기에서 생기는 고형암과는 달리, 골수나 임파선에서 발생하므로 처음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환자분들이 우연히 시행한 혈액검사 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되어 있거나 증가되어 있어 대학병원 등의 큰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 끝에 혈액암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또한 혈액세포의 수나 기능의 이상으로 증상이 발현하게 되는데,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이상으로 인해 잦은 감염, 잘 낫지 않고 심해지는 감염(폐렴, 패혈증 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적혈구의 이상으로 혈액공급이 잘 안되어 어지러움, 적은 운동에서 숨이 차는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혈소판의 이상으로 코피, 생리, 치질 등의 출혈이 잘 멈추지 않고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과도한 암세포의 증식으로 몸이 소진되어 수개월간 4-5 킬로그램 이상의 몸무게가 감소하거나, 밤마다 식은땀과 고열에 시달리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악성 림프종이나 일부 혈액암에서 임파선(림프절)이 커지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밖에서 쉽게 발

초기 뚜렷한 증상이 없는 **혈액암** 정기검진과 증상의 발현 시 정밀검사로 조기발견

혈액 세포들은 주로 몸 속의 큰 뼈 가운데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져 전신의 혈액으로 퍼져가며, 림프구의 경우는 태아 및 신생아 초기에 흉선에서 만들어져 림프 시스템으로 퍼져 자리잡게 됩니다. 이렇게 분화 생성된 세포들은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적혈구, 지혈 기능을 담당하는 혈소판으로 분화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혈액암은 혈액성분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앞서 말씀 드린 여러 정상 혈액 세포들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악성종양으로 변질되면서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





이현규 교수 | 혈액종양내과
 • 전문분야 : 혈액학, 종양학
 • 진료시간 : 외래 화(오전), 수(오후), 목(오전)
 폐암센터 월(오전), 목(오후)
 문의 : 혈액종양내과 ☎032 890 2219

전이 가능한 목주위, 편도선, 거드랑이, 사타구니의 임파선이 커지면서 덩어리가 만져져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외에 다발성 골수종이 있는 경우 심한 충격이 아니었는데도 뼈가 부러지거나 주저앉게 되기도 합니다.

원인과 예방법

혈액암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고선량의 방사선 피폭, 벤젠 등의 유기용매의 장기간 노출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때 혈액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들이 피폭된 사람들에게 발생한 것이 잘 알려져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노출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혈액암의 발생은 드뭅니다. 벤젠 등의 유기용매를 다루는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검사 및 작업환경의 조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일부가 알려져 있을 뿐 대부분은 혈액암의 발생 원인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예방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환경적인 요인을 피하며, 정기검진 및 증상의 발현 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혈액암의 조기발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단한 혈액검사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나 회사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을 잘 받으시고, 의심되는 증상이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혈액종양내과 외래로 방문하여 구체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치료법

혈액암은 혈액암의 종류마다 각각 그에 맞는 치료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급성 백혈병의 경우는 임상양상이나 염색체 이상, 분자유전학적 특징에 따라 위험도를 나누게 되며, 중간 혹은 고 위험군에서는 항암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재발할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수개월간의 항암치료(유도요법, 공고요법) 후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최근 먹는 표적치료제들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이러한 약들을 통해 90 퍼센트 가까이 질병이 잘 조절되고 있어 우선적으로 먹는 표적치료제로 치료를 시작하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이러한 먹는 표적치료제에 못 견디거나 내성이 생기는 경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악성 림프종은 병기와 조직학적 분류에 따라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1~2기인 경우에는 3~6회의 항암치료 후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3~4기인 경우에는 6~8회의 항암치료를 하며, 특히 4기 일부나 재발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비교적 전신상태가 좋은 65세 미만의 경우 4~6개월간의 항암치료 후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재발한 경우에는 환자 상태가 가능한 경우 추가적으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다시 하거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항암치료만을 합니다. 다발성 골수종의 항암치료는 다른 종류의 암에 비해 비교적 견디기 쉽지만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위험도를 나누게 되며, 고위험도로 갈수록 수술 의존도 및 감염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백혈병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나 고용량의 항암치료를 해야 하나, 많은 환자들이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항암치료나 보존적 치료만 하기도 됩니다. 항암치료로는 최근 몇 가지 신약들이 개발되었으며, 다른 항암치료에 비해 비교적 부작용이 적으나 역시 주의를 요합니다.

혈액암은 정기적인 검진과 증상 발현시 빠른 대처로 상당부분 조기발견이 가능하고, 비교적 진행된 경우에도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 등을 통해 많은 경우 완치나 장기생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혈액암의 조기발견에 힘쓰시고, 혹 혈액암으로 진단되더라도 의료진과 상의하여 최선을 다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과 흉터

난, 치료여드름일까? 관리여드름일까?

여드름을 누가 사춘기의 꽃이라고 했던가. 필자가 어린 시절엔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 가는 사람은 보기 드물었다. 그냥 놔두면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저절로 없어진다는 어른들의 말씀 때문인지도 모른다.

요즘에는 깨끗한 피부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서 점점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병원에 찾아 오는 추세이지만, 아마 아직도 그런 통념은 살아있어서 여드름 환자 중 대부분은 병원을 찾기 보다는 집에서 나름대로 관리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갖가지 정보가 쏟아지니 이것저것 찾아보며 연구하고 여드름에 좋다는 음식과 화장품을 찾아서 사용해보지만, 쏟는 정성에 비해 만족할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다가 여드름이 많이 심해지거나 이미 흉터가 발생한 채로 병원에 오게 되는 것이다. 여드름 클리닉에서 환자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여드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았으면 이렇게 심한 흉터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물어보면 여드름을 방치하지는 않았단다. 본인도 스트레스 받으며 여드름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흉터가 남더라는 것이다.

여드름 흉터의 관리

일반적으로 여드름 흉터는 잘못된 관리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로 여드름을 무리하게 짜거나 손을 대서 흉터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냥 놔둬도 흉터가 발생하는 여드름도 있다. 여드름에도 종류가 있는 것이다. 염증이 크고 심하게 발생하는 낭창형 여드름, 응괴성 여드름은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저절로 흉터를 남기게 된다. 좁쌀처럼 올라오는 여드름과는 차이가 다르다.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가면 여드름이 좋아진다고 해도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으니, 먼저 전문의를 찾아 본인의 여드름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드름인지 관리만 해도 되는 여드름인지 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염증이 심한 경우는 보통 흉터를 남길 수 있으니 일단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고 이후에 적절하



신정현 교수 | 피부과

- 전문분야 : 아토피피부염, 알러지, 백반증, 두드러기, 피부미용, 레이저
- 진료시간 : 월(오후), 화(오후), 수(오전), 금(오전)
피부미용색소클리닉 금(오후)
- 문의 : 피부과 ☎032 890 2230

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 또한 염증이 적은 여드름인 경우는 흉터가 남지 않고, 여드름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점에 대해 조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드름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혼자서 고민 말고, 일단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로부터 본인의 여드름에 대해 진단을 받고 어떻게 치료 혹은 관리해야 할 지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흉터가 발생했다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

여드름 흉터에는 붉은 색의 흉반, 거뭇거뭇한 색소침착, 움푹 패이는 함몰, 그리고 튀어나오는 비후성 흉터가 있다. 색의 변화는 약 1년 정도 지속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호전될 수 있지만, 함몰이나 비후성 흉터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저절로 호전되지 않는다. 함몰성 흉터에는 모양과 깊이에 따라 아이스피팅, 박스형, 롤링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후성 흉터는 주로 턱근처에 잘 발생하며 켈로이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슴과 어깨, 등에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드름의 흉터는 모양과 색, 발생 위치에 따라 다양하고 예후도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여드름 흉반과 색소침착은 IPL 레이저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동반된 염증성 여드름도 함께 호전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 함몰성 흉터는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프락셀 레이저와 화학박피, 레이저박피를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 비후성 흉터는 CO2 레이저 홀링법을 사용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콜라겐 섬유를 끊어 주면서 재생을 억제하는 주사요법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여러가지 흉터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방법들을 병용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흉터 치료를 하면서 여드름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염증이 동반된 경우는 먼저 염증을 호전시키는 방법(항생제 투약과 LED 광화학요법 등을, 모공이 많이 막혀있는 경우에는 필링을 먼저해주는 것이 좋다(그림 2). 최근에는 의료기기의 발달로 점차 다양한 레이저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원 피부과에서는 2012년1월부터 최신형 레이저를 도입하여 여드름 흉터 치료와 피부 주름 및 탄력의 개선을 원하는 환자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레이저는 한번의 레이저 조사로 흉터를 잘게 잘라주면서 피부 안쪽으로 고주파를 쏘아 주어 진피의 콜라겐 형성을 증가시켜 뛰어난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는 RF-프락셀 레이저(INFINI)이다(그림 3).

전문의의 진단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적절한 치료가 아름다운 피부로 되돌아가는 지름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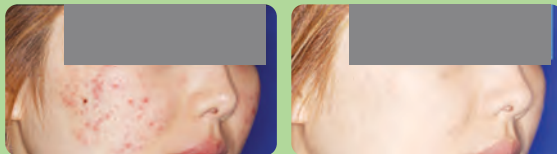


그림 1) 여드름 흉터의 치료 전후(IPL, 7회)



그림 2) 여드름 흉터의 치료 전후(LED + ECO프락셀,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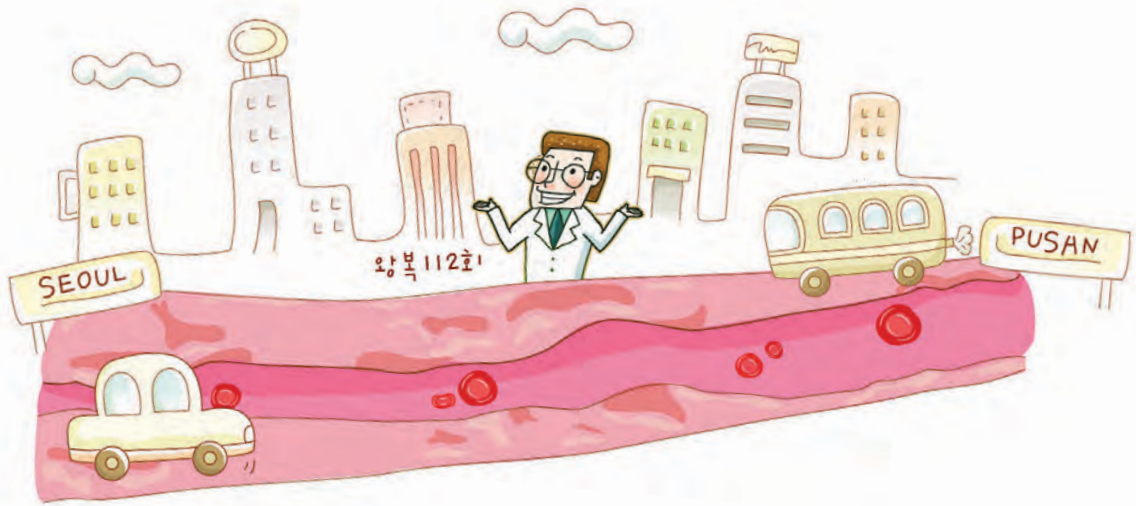


그림 3) 여드름 흉터의 치료 전후(INFINI, 3회)

인하대병원 혈관검사실 당신의 혈관은 건강하십니까?

서울~부산 112회 왕복길이! 몸속 혈관들의 반격을 대비하자!

건강하게 잘 있어주면 좋고, 아니면 아닌데로 그냥 무시당하는 혈관들.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무시당하던 혈관들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당뇨족, 동맥경화증, 말초혈관 폐색증, 혈관염, 정맥류, 경정맥 협착증등 혈관질환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렸을 적 한번쯤 해 봤을 황당한 생각중 하나!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하나로 연결한다면 과연 그 길이가 어느 정도 일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들의 얼굴엔 과연 혈관이 있을까?’

‘백설공주처럼 하얀 피부의 여인이 되기 위해서 얼굴의 혈관을 없애야 하나?’

인체에서 혈관의 총길이는 약 10만km이며 이 길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12회 왕복하는 길이정도다.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대혈관과 국도 혹은 시골 오솔길 역할을 하는 말초 혈관부터 우리 몸 구석구석 없는 곳 없이 곳곳에 퍼져 있는 수많은 혈관들.

그 많은 혈관 중 한 곳이라도 탈이 난다면...

‘어디가 탈이 난걸까? 어딜 가야 할까?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할까?’ 답답하다.

바로 인하대병원의 혈관검사실이 이런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이다.

5평 남짓의 작은 공간이지만 혈관상태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마법의 공간. 인하대 병원의 혈관검사실은 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첫 만남 상대이자 치료의 성과를 알려주는 마지막 상대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정체구간이 길어지는 경우 중앙 통제실에서 위성을 통해 그 위치와 사고의 경위, 정체 구간을 피해 이용할 수 있는 주위 도로의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해당 구역으로 교통경찰과 구급대가 투입되듯이 혈관검사실의 역할 또한 그러하다.



김장용 교수 | 외과
 • 전문분야 : 혈관 내 치료
 • 진료시간 : 월(오후), 수(오후)
 • 문의 : 외과 ☎032 890 2250

위성 역할을 하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막힌 혈관부위를 확인하고 막힌 혈관대신 사용가능한 혈관을 찾고, 막혀있거나 좁아진 혈관의 범위를 확인하여 교통경찰 및 구급대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이를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의사는 침습적인 검사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상태를 확인하여 수술 또는 혈관내 치료, 약물치료 등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듯 혈관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혈관검사실은 2008년 개소한 이후 월 평균 170여 건의 혈관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은미 방사선사는 현재 비침습적 혈관검사에 대한 국제적 자격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RVT(Registered Vascular Technologist : 혈관 검사자)를 국내에서 스물 세번째로 합격하였고, 인천에서는 처음 그 자격을 인정 받았다. RVT자격을 취득한 국내 방사선사는 32명뿐으로 이는 인하대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혈관검사가 국제적 수준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혈관검사실은 2,250명의 임상연구와 3,000여 건의 검사를 통해 혈관외과, 영상 의학과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연구 및 논문을 발표하는 등 혈관질환 치료 및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래 진료를 본 후 환자들은 발목상완지수와 두개부 내 혈관과 흉부 혈관을 제외한 모든 혈관의 해부학적 상태와 기능 검사받게 된다.



검사 장면 공은미 방사선사

혈관검사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사로는

- 경동맥 협착증, 복부 대동맥류, 신장동맥 협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복부 혈관 초음파,
- 하지동맥의 협착을 확인하는 하지 동맥 초음파,
- 하지정맥 폐쇄증, 하지 정맥류 확인하는 하지 정맥 초음파,
- 정맥이식 및 혈액 투석을 위해 시행되는 동정맥루 수술의 수술 전 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맥지도검사,
- 사지 혈압을 측정하여 혈관의 폐색정도 확인하는 발목 상완지수(ABI),
- 혈액투석 환자의 투석관 상태 확인 및 혈관 수술, 혈관내치료 등의 전 후 비교검사 등

혈관검사실에서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혈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몸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 하지만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피검사를 받을 때 외에는 아쉬움이 없는 혈관들. 이러한 혈관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인하대병원의 혈관검사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 혈관의 안녕을 위하여 혈관검사실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혈관검사실을 방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혈관외과 진료 후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가면 보이는 곳이 바로 혈관 검사실이기 때문이다. 혈관검사실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혈관의 안녕은 보장 받은 것이다. 혈관외과와 검사실 공은미 방사선사가 지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인하대병원 용띠 교직원들의 새해 소망과 덕담



차영덕 교수님 | 마취통증의학과

인하대병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가 용의 해라 흑룡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지만 저는 흑룡의 의미보다도 올해가 인하대병원이 개원한 지 16년이 된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서북부의 의료 발전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발전을 책임질만한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더욱 벅찬 희망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인하대학교의 상징인 비룡과 같이 비상하는 인하대병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준호 교수님 | 신경외과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걸을 때니는 일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제가 늘 바라는 새해 소망이 있다면,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모두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환자와 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명철 선생님 |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용은 변화무쌍한 영물로 간주 되어있습니다. 용도 시대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묻힐 것입니다. 요즘 화두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1.0 제품시대, 2.0 소비자중심, 현재는 3.0 가치중심, 상호중심 시대에 이제 저 자신 먼저 가정에서 가족에게 직장에서 동료와 환자에게 희생과 배려가 있는, 듣고 행해지는 진정성 있는 소통만이 우리 인하대병원과 자신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건승하시고 2024년 용의 해에 인하대병원의 미래에 가능성을 믿으며.....



윤은혜 선생님 | 외래간호팀 암센터 간호사

용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합니다. 저 또한 입사 후 15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용의 기운 덕분에 누구보다 활발하게 업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의 2012년, 하지만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릴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힘차게 비상하는 흑룡의 기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의 힘으로 용기와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진 선생님 | 홍보팀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는 산악인들은 고산증으로 피로울 때 쓰는 진통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랍니다. '힘들다, 괴롭다, 짜증난다' 처럼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머리가 더 아파지는데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산소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증거입니다. 올 한해 좋은 생각 많이 하셔서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는 임진년 새해가 되시고, 날마다 새로운 웃음과 가슴 벅찬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을 듬뿍 담아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경선 선생님 | 약제팀

퇴화한 집오리의 한유(閑遊)보다는 무익조(無翼鳥)의 비상하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이 훨씬 훌륭한 자세이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2012년 1월 1일 다이어리 첫 장에 적은 첫 글귀처럼 작은 일부터 행동으로 실천하는 2012년을 만들고 싶습니다. 2012년은 실천에서 답을 얻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스베틀라나 선생님
| 국제협력팀 러시아 코디네이터**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제가 용띠라고 합니다. 흑룡의 기운을 받아 올 2012년 임진년에도 외국인환자 코디네이터로서 더욱 더 노력하여 외국인 환자 만족에 힘쓰겠습니다.



장수진 선생님 | 특수간호팀 외과계 중환자실B 간호사

임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병원에 입사한지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더욱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며 새해에는 신뢰받는 멋진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2년 용의 해에 태어난 만큼 흑룡처럼 도약하고 화려하게 승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두 건강한 한해를 보내시기 희망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현우 선생님 | 교육수련부
소아청소년과 3년차 전공의**

원하지도 않았던 용띠가 다시 돌아오고, 보이지도 않았던 전공의 마지막 연차가 되어갑니다.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謹賀新年', "삼가 새해를 축하합니다" 라는 뜻으로 줄여서 '賀正' 이라고도 합니다. 신년인사를 조심스럽게 한다는 이유는 새해가 왔음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높은신 어느 분의 말처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말을 새기면서 2012년 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고 같이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모든 인하대병원 가족 분들 정말 따스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그리고 나무시 큰절 한번 올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인 선생님
| 병동간호팀 동 12병동 간호사**

제가 2011년은 정말 긴 한해였는데 벌써 2012년 새로운 해입니다. 올해에는 주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소망하듯 함께 하는 모두가 행복하고 뜻 깊은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Happy New Year!!



●2000년 4월 18일에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에서 2루 주자로 나가있던 임수혁 선수는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말았다. 임수혁은 프로 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심장 부정맥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쓰러질 당시 심장이 갑자기 아주 느리게 뛰면서 뇌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졌

고 기력을 잃어버린 뇌는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임수혁이 쓰러졌을 당시, 해당 상황이 부정맥에 의한 것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은 없었고, 임수혁을 헬멧만 벗긴 채 들것으로 덕아웃에 옮긴 것이 전부였다. 당시 한국 프로 야구에는 이같은 상황을 대처할 만한 의사가 한 명도 없었고, 수습 분이 지난 뒤에야 임수혁은 병원으로 옮겨져 간신히 맥박과 호흡을 살려낼 수 있었으나, 이미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임수혁의 뇌는 돌아오지 않고, 일부 생리 작용만 하는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다.



●축구선수 신영록은 2010년 5월 8일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주와 대구의 경기에서 부정맥에 의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었다. 신영록은 쓰러지자마자 현장에서 대기하던 간호사와 팀 운영요원에 의해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구급차에 태워져 7분 만에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병원 도착 후에는 심장 전기충격 치료로 심장 박동이 되살아났다. 심장마비로 뇌 혈액 순환이 일시적으로

멈췄지만 그로 인한 뇌 손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 신영록 선수는 경기장에서 쓰러진지 50여 일 후 의식을 되찾았다.

심장마비와 심폐소생술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생존율 3배 높여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환자의 생존율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글 · 백진휘 교수 | 응급의학과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는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중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온 몸으로의 혈액 순환이 중단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생 불가능하거나 소생 후에도 심각한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는 혈액 공급이 4 5분만 중단돼도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 법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에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개 급성 심장마비는 병원이 아닌 가정, 길거리, 직장, 공공장소 등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의료인이 아닌 가족 또는 직장동료가 심장마비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후 응급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수많은 심장마비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순서
 심정지확인 → 도움 및 119신고 요청
 → 가슴압박 30회 시행 → 인공호흡 2회 시행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회복자세

심장마비로부터 살아나는 사람 중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수척 선수처럼 생존하더라도 대다수가 심한 뇌손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해 회복된 후에도 의식이 없거나 심장마비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가 응급상황에 있을 때 당신이 응급처치에 대해 몰라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당신도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만 당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익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인하대병원은 **대한심폐소생협회 (KACPR)**가 지정한 **BLS Training Site**인 **〈인하대병원 BLS T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3월부터 매월 2회 의료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AHA BLS Instructor에 의해서 BLS Provider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참여 후 의료인은 당일 시행되는 술기평가 필기시험에 합격한 교육생에게는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인증하는 AHA(미국심장협회) Certification Card를 발급하며, 일반인 과정의 경우는 술기평가 합격자에게 수료카드를 발급합니다.

●문의 : 인하대병원 BLS TS 담당자 차기훈
 032 890 2895

간호부는 TOGETHER 함께 하는 간호부라는 미션 하에 2011년부터 지역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활동은, 암(질환) 지역사회 교육 및 홍보이벤트 확대사업의 일환인 암 전문 병원 이미지 구축을 위한 원외 건강공개강좌(사업장, 학교)를 진행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원외 건강공개강좌 'TOGETHER' 함께 하는 간호부 후끈, 호기심 가득, 생생한 현장~

글 · 박종숙 간호사 | 특수간호팀 외과계중환자실 B

학교 강좌는 2011년 11월 16일 인일여고(370여 명)에서, 11월 23일 인천여고(630여 명)에서 수능을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우영, 황성욱 산부인과 교수님과 조영업 외과 교수님께서 '자궁암, 유방암의 예방'이라는 주제로 여고의 특성을 고려하고 고교생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의료진이 학교에 방문하여 강좌를 진행한 것이 처음이라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강의에 집중하였고, 유방암 자가 검진법을 따라 하면서 흥미있어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인하대병원의 많은 준비에 놀랐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수능을 마친 뒤라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는데,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연이 계속되면 좋겠어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뜨거운 반응 때문인지, 강좌를 진행한 모든 선생님들이 추위도 잊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사업장으로는 2011년 12월 2일 기호일보 직원(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최선근 외과 교수님께서 '대장암의 이해와 예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모두 "기저라는 직업 특성상 잦은 술자리와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고 있어 대장암 예방에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대장암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40대 이하의 발병률이 높다





는데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겠어요.”라며 강의 내용에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강의 후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기자회견 못지않은 열띤 시간이 되었습니다(‘인하대병원 본보 임직원 대상 대장암의 이해와 예방 특강 열려’라는 제목으로 2011년 12월 5일 기호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앞으로 2012년 2월에는 경인방송 직원을 대상으로 강좌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강좌 전, 후 학교 교직원과 기호일보 직원에게 무료 암 표지자 혈액검사(여성: 난소암, 대장암, 간암/남성: 전립선암, 대장암, 간암 선별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무료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좋아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개별 우편 발송하였고,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 유선으로 전문의 소견과 진료 절차를 설명하여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간호부의 두 번째 활동은 지역사회 교육으로 고교생 대상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심폐소생술 교육, 보건교사 대상의 직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2011년 11월 16일에 인천 논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사, 의사 등 직업 소개’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동생에게 진학 상담을 하듯 직종에 대한 소개 이외에도 공부로 지친 고등학생에게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후에는 병원 투어를 실시하여 직접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멀게만 느껴졌던 병원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업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병원도 지역사회에 병원 소개와 더불어 교직원의 다양한 능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BLS Instructor, BLS Provider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가 인일여고 학생 200명에게 2012년 1월 4일간 4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2011년 원의 건강공개강좌의 인연으로 이루어져서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고생이어서인지 처음에는 참새처럼 재잘거리며 웃고 떠들었지만, 곧 진지하게 교육에 임하였습니다. 강의 후 모든 학생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AED 작동 실습을 하였습니다. “강의 비디오는 쉬워 보였는데 실제로 해보니 힘들고 어려워요.”라며 동작 하나하나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 모습을 보면서 실습 인형을 옮길 때 무겁고 힘들었던 기억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부는 2011년 11월 본원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지정한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2012년 1월 9일~13일까지 5일간 인천시내 보건교사 3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사를 위한 소아청소년 간호’라는 직무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소아청소년의 질병과 간호에 대한 강의 및 실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들에게 최신 전문 간호와 수준 높은 임상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여했던 보건교사들은 본원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에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본원의 수준 높은 소아 청소년 치료와 간호의 전문성 홍보를 통해 미래 잠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는 간호부 활동은 한 개인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내·외 강좌마다 시간을 내어 좋은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 강의 혹은 체혈을 해주신 간호사님들, 여러 지원부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도움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1 이홍식 단장이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관찰하시는 모습
- 2 안과 문연성 교수의 진찰 모습
- 3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교수의 현지 어린이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





인도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와서

나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

글 · 박우주 간호사 | 병동간호팀(동 8병동)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엄청난 인구, 빈부격차, 가난, 구걸하는 사람들, 짜이 한 잔의 여유였다. 대학생 때 40 일간 길고도 짧은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도의 매력에 빠졌고, 내가 느끼지 못한 다른 매력이 있을 것만 같아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 인도 의료봉사 공지를 보고 신청을 하고, 함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뛰고, 너무나도 설레었다. 병원 의료진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 관계자들과 우리 복지 관계자, 해피빌더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간다는 사실에 더 설레었던 것 같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8막 9일이라는 길고도 짧은 봉사활동을 떠나게 되었다.

첫날 3개 마을을 돌며 장소를 확인 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하게 웃어주며 손을 흔들어주고 초롱초롱하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사람들.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따라다니던 아이들. 앞장서 마을을 구경시켜주셨던 청년들. 인도 여행시 만났던 도시 사람들도 그러하였지만 시골 마을 사람들이라 더 순수하고 꾸밈없이 친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포스코 건설 인도 망가온 CGI(용융 아연도금 강판 생산공장) 현장 인근 3개의 마을에서 3일간 의료진은 의료활동을 하고 학생들은 문화 활동을 하였다. 땅이 넓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긴 이동시간과 에어컨 시설조차 힘겨워 보였던 좁은 버스, 풍족하지 못한 물, 다소 입에 맞지 않는 음식, 30℃가 넘는 날씨에 다들 지치고 힘들었지만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였다. 의료진은 번호표를 나눠주고 접수를 받고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해 주었다. 해피빌더 단원들은 의료진을 돕고,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손씻기, 양치하기)을 하고 한국문화체험 활동(풍물놀이, 노래 부르기, 율동 등)을 하였다. 마을 주민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었고 원활한 의사소통은 안되었지만 좋아해주고, 만족스러워 하며 환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3개의 마을 모두 거의 자급자족을 하며 그들 마을



마다 전통을 따르고, 나름의 생활방식이 있어 보였다. 농사일을 하고 몸을 사용하여 일을 하다 보니 성인 대부분이 관절통, 근육통을 호소하였다. 만성 질병이나 급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긴 했지만 의료자원과 거리가 멀어 의료혜택을 원활하게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시골 마을이었지만 생각보다 위생 상태가 좋았고,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이 없어서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 날에 마을 족장님과 관계자분들, 마을사람들이 모여 감사인사를 하고 고마움을 표시해 주었을 땐 뿌듯하고, 이런 것이 봉사의 참맛이구나! 했다.

갑자기 전기가 끊기고 필요한 재료가 원활하게 공급 되지 않고 의사소통의 문제 등 때때로 당황하고 여러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여러 사람

들이 노력한 끝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마을마다 사정이 다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해 하며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이것이 바탕이 되어, 이후 더 나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하다고 불행하고 부유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야말로 마음이 부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잠깐 멈춤'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인도사람들의 느긋함과 여유로움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간호사로서 목표였는데 이번 의료봉사활동으로 나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어서 나에게 뜻깊은 시간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 하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 의료봉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네루 대학교의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주고 한국어를 공부하며 통역을 도와준 인도 학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포스코 건설, 망가온 현지 포스코 건설 관계자분들,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해준 우리복지 해피빌더 봉사단원들과 인하대병원 봉사단원들에게 감사하며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화이팅' 을 외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의 진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다.

우리를 보며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를 짓고 인사하는 인도 사람들의 모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피르밍겔레 (see you again) India ~

- 1 이경미 수간호사가 할머니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 2 조수재 간호사의 시력검사 장면
- 3 인도 해외의료봉사 단체사진



동행방한 기다림



절망과 낙망 끝에서 기적을 경험하다

저희 남편은 간암으로 투병하던 중 지난해 12월 23일 의사자로부터 간을 받아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들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을 하고, 저 또한 이 일이 기적임을 알았지만 처음에 이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그때까지의 병원비조차도 사실 부딪스러워 어찌해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루 밤 한 술가락도 먹기 힘든 남편이 계속 이어지다시피 했었고, 남편의 상태도 썩 좋지 않아 남편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올지에 대한 확신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식수술만이 최선의 유일한 방법인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마치 모험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이니곤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과, 중2, 초6, 초3, 초1인 남자 아이들 넷과 죽음의 기로에 서있는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픈걸 알고 6개월간 직장에 잠시 나갔었지만 제 월급의 전부가 남편의 병원비로 다 들어갔고,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은 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현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화되는 남편의 병세로 인해 그녀가 월급을 받던 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때는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모든 수입이 끊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흔히들 갖고 있을 법한 친절과 시댁도 저에게는 없었기에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소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간병을 하는 틈틈이 하루에 한 두 번 집에 가서 겨우 땀만 해놓고 오기도 바빴습니다.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친정 어머니를 형애암으로 여의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아이들이 갚아야 할 어려움에 대해서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 간병을 위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병원비 마련에 앞이 캄캄했지만 도움을 주시는 손길들이 있어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내에 사회복지사님이 어려저러한 방법들을 찾아주셨고, 인하대병원 간호부 봉사모임인 예지회에서 후원을 해주셨구요. 긴급지원제도를 통하여 생활비와 남편의 병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인하대병원 사회복지사님과 구청 관계자분들 그 밖에 크고 작은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절망과 낙망 끝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주신 이윤 모을 기증자 분과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을 따뜻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 새해에 인천항이 내려다 보이는 병실에서 이현주 올림. 

*이현주님의 남편은 지난해 12월 23일 간이식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상담 및 후원 문의: 인하대병원 진료지원팀 원공주 사회복지사 ☎전화 032 880 2870



문학동 행복상담원

김평숙 님의 더불어 행복(삶)

어느덧 6년차에 접어든 그녀에게 주위에선 “초짜처럼 뭘 그리 열심히 한다고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말하지만, 묵묵히 일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자신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이혼율이 1위다. 이 중에서도, 인천의 이혼율이 전국 1위다. 그것도 2002년 이후 무려 8년째 이 불우한 통계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평숙 씨는 남구 문학동의 '행복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인천시는 이혼율 1위 등의 불명예를 씻고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 가정, 노인문제, 아동문제, 가정 성폭행문제, 다문화가정, 장애인문제 등이 일어나는 소외계층 현장에 밀착해서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는 '행복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에 '행복상담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주3회 1일 4시간 봉사, 식비와 교통비로 1일 2만 7천 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김평숙 씨의 고향은 부산, 결혼과 함께 남편을 따라 인천에 온 지 어느덧 15년째다. 결혼 전에는 병원 원무과장을 지내는 등 적극적이고 당찬 성격의 부산아가씨였다.

처음 '행복상담원'을 시작할 때는 경제적 수입과 사회적 봉사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선 최소한의 수당만 지급되는 '자원봉사자'와 크게 다를 바 없어서, 망설이다 그만두는 이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한다. 지금도 이들 '행복상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인천시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지만, 활동은 각 구 산하 주민센터에서 전개하고 있어 '행복상담원' 각자의 소신과 능력에 따라 상담과 지원활동의 실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장을 매일 찾아다니는 일이라서 김평숙 씨는 누구보다 지역 소외계층의 실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요즘과 같은 겨울철, 돈이 없어 아예 난방을 하지 않는 차가운 방에서 덜덜 떨며 주민과 상담하는 일, 최근에는 60세가 넘은 자식이 아간경비 일로 약간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급자에서 해지된 80대의 할머니가 살길이 막막해져 죽고 싶다며 우는 일 등, 현장의 사연을 접수시켜도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지원할 방도를 찾지 못할 때 마음 한 칸에 무거운 짐들이 쌓여 간다.

친정이 유복한 환경이고, 별다른 고생 없이 살았다는 김평숙 씨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돈도 벌고 자기계발도 함께 하겠다는 출발이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봉사의 중독성(?) 때문일까, 쉽게 그만 둘 수 없었다고 한다. 어느덧 6년차에 접어들어 그녀에게 주위에선 “초짜처럼 뭘 그리 열심히 한다고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말하지만, 묵묵히 일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자신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는 김평숙 씨는 “비록 작은 수입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의 학원비가 되어 주었으니 그것도 기쁨이죠.”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

6년째 행복상담원으로 활동하는 김평숙 씨가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사연들 몇 가지를 보자. 다문화실태조사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가정인데, 사별한 남편이 남긴 24평 아파트 담보로 8천만원의 빚을 진 70대 초반의 유 할머니, 장애인들과 베트남 출신 며느리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집을 팔려고 해도 도무지 팔리지 않아 애만 태우던 중, 임신한 베트남 며느리는 주안의 00산부인과 응급실에서 유산을 하고 말았다. 정기 방문길에 유 할머니로부터 “현금도 없는 우리 처지에 병원비가 청구되었는데 어쩌면 좋으냐”는 하소연을 듣고, 그 길로 후원해줄 재단을 연결해주고, 00산부인과에서도 약간의 지원이 결정되어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

유할머니는 아파트 대출금 상환 압박으로 고통을 받자 청와대 민원실까지 찾아가 집의 처분을 도와달라는 진정까지 내었다. 그 후, 김평숙 씨와 남구청 가정복지과 신현복 팀장의 도움을 받아 주택공사의 주선으로 기존의 집을 처분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해서, 현재는 수급자 지원까지 받게 되었다.

또, 70대 권할아버지는 월세 180만 원 연체로 길바닥으로 쫓겨날 처지에서 김평숙 씨와 연결되어, 지금은 문학동 임대주택에서 수급자 지정을 받아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이밖에도 어르신들의 백내장 수술지원을 지역 안과와 연결해서 진행, 또 안경점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안경지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행복상담원 중에서도 유난히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가 김평숙 씨다.

그간의 활동실적을 인정받아 2009년에는 인천시장으로부터 ‘행복상담원 우수상’ 까지 수상한 김평숙 씨는 꼭 하고 싶은 한 마디로 ‘행복상담원’들의 활약으로 인천시로 쏟아져던 민원들이 크게 줄어들었고, 지역주민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죠. ‘행복상담원’ 제도의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 했다.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촘촘한 사

회안전망 서비스가 이루어야 한다는 복지확대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드높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복지제도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활동이 씨줄과 날줄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고, 이 연결을 담당할 현장의 네트워크 망이 있어야 한다. 전국에서 복지확대의 요구가 가장 절실한 인천지역의 ‘행복상담원’ 들은, 현장에서 움직이는 복지네트워크의 손발로 기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진심어린 격려를 보내고 인천시민의 세수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행복상담원의 확대와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복지행정’ 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 글 권영선 (사)희망배달본부 본부장
- * 경인방송 희망배달본부 032 830 1004
- * 행복상담원 김평숙 씨는 화, 수, 목요일 오전9시-오후 1시에 남구 문학동주민센터에서 활동

행복상담원 동료들과 함께 (뒷줄 우측에서 두 번째가 김평숙 씨)



Q&A



대상포진 예방으로 수두백신 대체 NO!!

Q : 대상포진(shingles) 백신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수두백신을 대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 대상포진 백신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으로 미국FDA 허가 품목인 조스타박스 주[®](MSD)가 있으나, 이는 2014년경 국내 시판 예정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수두백신을 대체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두 백신(바릴릭스주[®])은 대상포진 생바이러스 백신과 성분 항원이 동일하지만, 약독 수두 생바이러스의 함량이 수두 백신(바릴릭스주[®])은 2,000 PFU이며, 조스타박스 주[®]는 19,400 PFU으로, 조스타박스 주[®]에 약 10배 정도로 함량이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상포진 백신인 조스타박스 주[®]에 대해 설명드리면, 미국 FDA 허가사항 및 국내 식약청에서 규정한 접종대상자는 '50세 이상 성인' 에서 수두의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백신을 1회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에 걸렸던 사람도 대상포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치료를 위해 백신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대상포진 발생 위험을 51%,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위험을 6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신의 효과는 6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 불임치료에 유방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유방암 치료제인 Letrozole(Femara[®]) 은 난소에서 난자를 성숙시켜 나팔관으로 배출시켜 주며, 자궁벽을 정상화시켜 착상을 유지시켜 주므로 불임에 사용하면 임신률이 증가합니다.

작용원리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는 과정을 막아주는 작용(Aromatase 억제제)을 하여 여성 호르몬인 estrogen 생성을 감소시켜 주며, 이 작용은 유방암 억제 작용 뿐 아니라 배란을 유도하므로 임신 촉진 작용도 합니다. 기존 불임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lomiphen 은 estrogen 이 estrogen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여 배란수를 증가시키기는 하나, 이 약을 자주 사용하면 자궁벽이 변화를 일으켜 수정란이 착상하기 어려워 임신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 Letrozole 을 투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etrozole 을 불임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수순을 밟아 복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과 처방 하에 치료해야 합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인하대병원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 안내

저희 인하대병원은 평소 국민보건발전을 위하여 진료현장에서 매진하시느라 소홀하기 쉬운 원장님의 '건강 지킴이'가 되고자 2010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원장님의 건강을 돌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하대병원은 지역 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장님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일 정 : 2012년 3월 18일(일) 08:00 ~ 13:00
- ▶ 대 상 : 원장님 및 배우자
- ▶ 혜 택 : 30% 감면 적용
- ▶ 신청기간 : 2012년 2월 13일(월) ~ 2월 29일(수)
- ▶ 신청방법 : 전화예약(890-3500) 및 신청서 작성 후 FAX접수(890-3999)
- ▶ 문의사항 :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실(890-3500/3302) 이동열 과장



❖ 의료인을 위한 검진 항목 및 검사 해설

유형	구분	검진항목	검사해설	
기본	공통	Chest CT(others)	폐의 횡단면을 투과한 X선의 감약 정도의 차이를 2·3차원 영상을 재구성 해부학적 구조와 병변의 유무, 크기, 기능변화, 암전이 여부	
	공통	Abdomen + Pelvis CT(Contrast)	간질환, 담도계질환, 위장질환, 췌장질환, 비장질환	
	공통	Colonoscopy(Total, Colyte)	항문-충수돌기의 맹장 부위까지 내시경관을 삽입 대장용종, 장결핵, 대장암, 대장염, 크론씨병, 게실질환, 항문질환, 그 외 장염 등	
	공통	EGD	식도·위·십이장까지 내시경 관을 삽입 염증성질환, 출혈, 정맥류, 용종, 점막 하근종, 궤양, 종양 등	
	공통	Sleeping EGD + Sleeping Colon		
선택	1	공통	Brain + Angio MRI GD	대뇌 및 소뇌의 해부학적, 선천성 기형, 염증, 뇌경색, 뇌출혈, 종괴, 낭종, 허혈성 질환, 치매 등
	2	공통	PET Torso(AD)	CT 영상을 밑그림으로 이용 그 위에 생화학적인 PET영상을 겹쳐 발견된 병변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3	여	Breast U/S(only)	고해상도 초음파 기기를 이용 섬유선종, 유방암, 농양, 낭종 등을 진단
	4	공통	Thyroid U/S	고해상도 초음파 기기를 이용 양성결절, 악성결절, 미만성 갑상선질환 등 진단
	5	공통	3D Angio Coronary CT	1초에 64개의 영상을 얻어 이를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 움직이는 심장에 대한 진단, 관상동맥,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폐색전증 등의 진단
	6	공통	CBC(6종)	
	7	공통	Admission pannel(13종)	
	8	남	종양표지자(AFP, CEA, CA19 9, PSA)	
	9	여	종양표지자(AFP, CEA, CA19 9, CA125)	



● 아이본산부인과
고용석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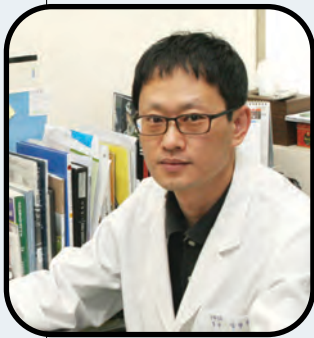
365일 당직의사가 있는 ‘정통 산부인과의 맛’

“20대부터 산모들과 함께 해 온 세월이죠. 산모들을 위해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습관이 되어 버렸지요.”

진찰실에 앉은 의자 하나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고 출산하는 산모들만을 위한 산후조리원까지 운영하고 있는 아이본산부인과 고용석 원장은 ‘진정성’에 의미를 둔 진료가 통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 환자들과 소통을 잘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고 원장은 진정성을 갖고 환자와 만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올해 초 고 원장은 직원들에게 2가지를 당부했다. 상대방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는 것과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을 말이다. 고 원장은 새로 무엇을 어찌하기 보다는 각자가 잘하는 능력으로 환자와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본산부인과를 찾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생명의 탄생을 보는 고 원장의 마음은 늘 신비로 벅차다. 어렵게 아기를 품에 안은 그들을 보면 울컥하는 가슴 따듯함도 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져 어렵다는 상황에서도 아이본산부인과의 생명 탄생은 끊임이 없는 것이다.

아이본산부인과는 365일 당직의사가 있는 병원이다. 정통 산부인과의 맛을 그대로 고수하며 산모와 태아를 위해 3명의 원장들은 가까이 병원을 지킨다. 또 고 원장은 50여 명의 직원들이 이러한 병원 운영에 함께 동참하며 일하는 만족,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음 좋겠고, 아이본산부인과를 찾는 이들에게는 편안한 병원으로 남고 싶은 소망을 전한다. ● 인천시 중구 경동 ☎032 772 7474



● 마디정형외과
김영주 원장

‘마디, 마디’의 건강을 편안하게

어깨, 무릎 관절 전문병원으로 마디정형외과가 개원을 한 것은 2011년 2월, 1년 전의 일이다. 열린 마음으로 지역 주민 옆에서 따뜻한 동네 주치의가 된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문을 연 마디정형외과는 어깨관절, 무릎관절, 척추 클리닉을 전문으로 진료하며 간단한 수술도 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물리치료실과 난치성 힘줄, 인대, 근육질환을 치료하는 체외충격파기 등 질환에 따라 적절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디정형외과는 지역 특성상 노인 환자분들이 많다. 김 원장은 꼬깃꼬깃 씌뚝돈으로 진료비를 내시는 만큼 형편에 더 맞춰드리고 싶고, 편하게 빨리 병이 호전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월미도 섬에서 배타고 나오시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너무 고맙죠. 또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널리 홍보도 하시죠.”

김 원장은 추운 날씨 멀리서 오시는 노인 환자분들이 고마우면서 또 걱정이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조금 아파도 싶으면 미리 챙기는 것이 좋고 어깨 돌리기, 간단한 스트레칭 등을 꼭 권유해 드리고 싶단다.

김 원장은 편안하고 친절한 진료 서비스로 다시 찾아 주시는 환자들에게 더 내실을 다지는 한 해로 새해 계획을 잡고 2월에는 내과 진료 분야가 합류를 하게 된다. 인터뷰 전 잠시 김 원장을 기다리는 동안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이름을 기억하던 간호사의 맑은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다. 김 원장의 잔잔하면서 따뜻한 의료 마인드가 직원들에게 그대로 녹아 있음이 분명하다. ● 인천시 동구 화평동 ☎032 766 8275



2011년도 협력의료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

인하대병원은 2011년 12월 5일, 인천 송도 웨어홀 호텔에서 총 37개 협력의료기관의 병원장 및 진료과장 등 90여 명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인천광역시사회 김남호 회장을 비롯한 인천광역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협력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하대병원 박승림 의료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충섭 개발단장의 '新 포괄수가제(DRG)의 개념과 이해', 인하대병원 혈관외과 김장용 교수의 '노인성 혈관 질환의 혈관내 치료'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인하대병원 '해외교수특강' - 고령자의 신체활동과 낙상예방 ●

2011년 12월 29일, 인하대병원 3층 제 1 강의실에서 <고령자의 신체활동과 낙상예방>과 관련하여 해외교수 특강을 실시하였다. '고령자의 신체활동의 중요성과 가이드라인', '고령자의 인지증과 낙상예방'에 관하여, 일본에서 노인의료정책을 기획하고 노인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 동경 공과대학 타이키 고마츠 교수와 노인 장수를 위한 운동 신체활동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노인장수연구소 박현태 박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몽골복지부관계자 방문 및 베트남 보건관계자 팸투어 실시 ●●

2011년 12월 9일, 몽골 복지부 관계자들과 의료진이 본원을 방문하였다. 해외의료관광분야에 대한 논의와 본원의 주요 시설 견학을 위해 방문했으며, 본원과 연계한 다양한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12월 13일에는 WHO Fellowship 베트남 의료관광과정 일환으로 베트남 하노이 보건부 국제협력과 직원들과 호치민 시 보건국 직원들이 본원을 방문하여 팸투어를 실시하였다.



'ADHD의 올바른 이해와 치료' 공개강좌 개최 ●●●

2011년 11월 23일,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섭 교수는 '2011 All Day Happy Day 캠페인' 일환으로 'ADHD의 올바른 이해와 치료' 관련 공개강좌를 실시했다. 이정섭 교수는 "ADHD는 학령기 아동에서 자주 나타나는 질환으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만성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이다."라며 "부모와 선생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인천여고 방문, '여성암' 공개강좌 실시 ●

2011년 11월 23일,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암 홍보의 일환으로 인천여고를 방문하여 건강공개 강좌를 실시하였다. 이제 막 수능을 치른 고3학생 650여 명을 대상으로 자궁암, 유방암에 대하여 산부인과 이우영 교수, 외과 조영업 교수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진행되었다. 아울러 강좌 전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암 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자궁암 및 난소암의 이해와 예방' 공개강좌 실시 ●●

2011년 11월 30일, 인하대병원은 '자궁암 및 난소암의 이해와 예방' 과 관련하여 건강공개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에서 산부인과 송은섭 교수는 자궁암과 난소암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하여, 이병익 교수는 암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폐경기 관리법' 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12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이날 강좌는 수준높은 강의와 강의 전에 실시된 무료 암검진(대장암, 간암, 난소암, 전립선암)으로 참석자들이 크게 만족하였다.



해외 의료진과 함께하는 인하대병원,

우즈벡 의사 의료연수 수료식 실시 ●●●

2011년 12월 13일, 보건산업진흥원과 인하대병원이 함께 진행한 우즈벡 의료진 연수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우즈벡 정형외과 의사 안바(Anbar)는 3개월간의 의료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늘 곁에서 도와준 인하대병원 교직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몽골 제3국립병원 의료진, 본원 의료 연수 수료 ●●●●

2011년 12월 5일, 몽골 제3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오로수에 대한 의료연수 수료식이 실시되었다. 연수 의사는 1달간의 짧은 기간 동안 재활의학과 김창환 교수 등 본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최신 의료기술을 배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향후 자국으로 돌아가 인하대병원과의 인연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암 홍보대사 교육 실시 ●●●●●

2011년 11월 18일, 24일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암 극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암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차 교육은 '암 멘토링의 의미와 방법, 유의사항' 에 대하여, 3차 교육은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교수의 '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흉기연 영양사의 '암과 영양식' 등 다양한 강의로 보다 전문적인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인하대병원 암 홍보대사는 본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분들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일 암 홍보대사 위촉 및 발족식을 하고 활동 중이다.



제 1 기 호스피스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

2011년 12월 13일, 인하대병원은 '제 1 기 호스피스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과정 수료식' 을 실시했다. 지난 12월 5일부터 5일에 걸쳐 20시간 동안 실시한 본 과정은 기 활동 중인 본원 호스피스 봉사자와 일반신청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호스피스의 개요에서부터 호스피스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돌봄 그리고 사별가족관리, 영양 및 통증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주관하여 진행된 본 과정은 향후 호스피스봉사자의 증대와 봉사자들의 자질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소외계층에 사랑의 선물 전달 ●●

인하대병원은 2011년 12월 21일, 인천 중구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사) 건강사회운동본부와 함께 다문화가정 등 지역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사랑의 선물로 사용된 라면, 쌀, 치약세트, 겨울옷 100여 벌 등 생필품과 위생 도구 등은 지역 다문화가정, 이주 노동자,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인하대병원 간호부 '예지회' -간 이식 환자 및 불우 환우에게 사랑의 성금 전달 ●●●

2011년 12월 30일, 인하대병원 간호사회인 '예지회' 가 2011년을 마무리하며, 간 이식 환자 등 불우 환우를 대상으로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인하대병원 간호부는 바자회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입원환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성금전달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자선공연단 '고운소리'

연말연시 맞아 환우 및 불우이웃 대상 공연 성료 ●●●●

인하대병원 자선공연단 '고운소리' 는 12월, 연말연시를 맞아 원내 · 외의 환우 및 불우이웃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하였다. 병원 미화원 위안공연, 희망의 집 어르신 위안공연, 크리스마스 환자 위안공연 등 병원 안 밖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노래와 연주, 최신 K-pop 방송 댄스, 발리댄스, 난타, 민요 등 즐겁고 신나는 공연으로 많은 이들에게 마음이 따스해지는 시간과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연말 환자들을 위한 공연 풍성 ●●●●●

2011년 연말에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렸다. 12월 23일에는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 로 '널 사랑하겠어',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등으로 유명한 '동물원' 의 공연이, 20일에는 폴립스 플룻 앙상블의 사랑의 음악회가 열렸다. 투병 중인 입원환자 및 보호자들과 내원객들은 병원에서 공연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병원, 자원봉사자 송년회 ●

2011년 12월 27일, 인하대병원은 지난 한 해동안 병원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을 모시고 '2011년 송년회'를 하였다. 이날 2011년도 실적 우수봉사자 및 10년 근속봉사자 시상 후 레크리에이션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봉사에 임해주시는 인하대병원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시간이였다.



희망찬2012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인사 ●●

2012년 1월 2일, 새해 첫 진료일에 병원을 방문한 내원객들에게 따뜻한 차와 함께 행운메시지가 들어있는 포춘키를 전달하였다. 내원객들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봉사하는 교직원들과 새해인사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하대병원 박승림 의료원장,

지역사회공헌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 부터 표창장 수상 ●●●

2011년 12월 1일, 인하대병원 박승림 의료원장은 지역사회발전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에 크게 이바지 하여 송영길 인천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인하대병원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이홍식 인하사회봉사단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

2011년 11월 30일, 인하대병원 이홍식 인하사회봉사단장이 한국마사회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1 세종 나눔 봉사 대상' 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2011 세종 나눔 봉사 대상' 은 KBS 한국방송공사, 중앙일보, 한국마사회가 후원하고, (사) 한국국제연합봉사단 (총재 백선업)이 주관하는 상으로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다운 한국인에게 주는 대한민국 나눔, 봉사의 최고 권위 상이다.



인하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교수,

2011학년도 인하대학교 우수교육상 수상 ●●●●●

2011년 11월 16일, 인하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교수가 '2011학년도 인하대학교 우수교육상' 을 수상했다. 김우철 교수는 의학교육에서 새로운 교육방법인 문제 중심 학습 (Problem-based learning)을 도입 및 정착시킨 공로로 우수교육상을 수상했다. 김우철 교수는 금번 우수교육상으로 받은 상금(3백만 원)을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전액 기부하였다.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 - 두개저외과학회 회장 선출 ●

2011년 12월에 열린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김은영 교수가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은영 교수는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및 연세대에서 신경외과를 수련 받고 현재 인하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신시네티의과대에서 뇌종양 및 두개저수술 분야를 연수하였고 뇌종양, 안면경련증 및 삼차신경통에 대해 국내에서 손꼽히는 수술 및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적인 권위자이다.



인하대병원 전현석 시설팀장,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수상 ●●

2011년 11월 24일, 인하대병원 전현석 시설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전현석 부장은 해외유입 감염병(SARS) 및 고병원성 A 등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거점병원 확충사업에 공헌한 비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문의 여성암센터 ☎ 032 890 2560
▶홈페이지 www.inha.com ▶여성암센터 ▶카페 cafe.daum.net / inha_bluebird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송년회 개최

2011년 12월 15일 주안 천년뷔페 웨딩홀에서 100명 정도의 유방암 환우와 가족분들이 모여서 즐겁고 뜻깊은 송년파티를 가졌다. 지역구마다 노래와 춤 등 장기자랑을 뽐내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2년 임진년 용의 해에는 승천하는 용처럼 더욱더 밝고 희망찬 인하대병원 파랑새가 될 것을 다짐하며 촛불의식으로 한해를 정리하였다.

▶ 다음 행사 - 파랑새 정기총회

일시: 2012년 2월 14일

장소: 인하대병원 3층 강당

내용: 파랑새 회장 선출 및 임원 선출 예정

※ 시간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홍보 영상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2011.11.22



출연: **김정희 교수/소아청소년과**
신정현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SBS '현장 21'
 내용: 시간장애인 진료 및 인터뷰

2011.11.25



출연: **이보영 간호사,**
조영아 간호사/간호부
 프로그램: MBC '파워매거진'
 내용: 간호사재취업지원사업 관련 병원 교육내용 소개

2011.12.02



출연: **이홍식/인하사회봉사단장**
 프로그램: 경인방송 90.7 MHz '심폐한 아침 원기법입니다.'
 내용: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과 의미

2011.12.04



출연: **김순현 교수/내분비내과**
 프로그램: KBS '스포츠토크' 권리다
 내용: 청소년 당뇨의 원인과 치료

2011.12.12



출연: **박현선 교수/신경외과**
 프로그램: OBS '생방송 헬로닥터'
 내용: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

2011.12.14



출연: **정현영 교수/재활의학과**
이지은 교수/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MBC '착한나눔 희망세상'
 내용: 발달장애 불우환아의 치료

2011.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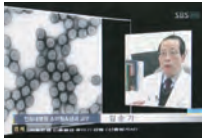
출연: **김철우 교수/알레르기내과**
 프로그램: OBS '생방송 헬로닥터'
 내용: 천식의 예방과 치료

2011.12.30



출연: **임중환 교수/직업환경의학과**
 프로그램: YTN '7시 뉴스'
 내용: 토양 내 중금속과 인체 유해성

2011.12.30



출연: **김순기 교수/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SBS '8시 뉴스'
 내용: 바이러스성 장염 주의 인터뷰

2012.01.02



출연: **김규성 교수/이비인후과**
 프로그램: MBN '닥터솔루션'
 내용: 어지러움증의 원인과 치료

2012.01.05



출연: **이연지 교수/가정의학과**
 프로그램: 인천방송 T broad '8시 뉴스'
 내용: 노인성 저체온증의 위험성과 예방법

2012.01.16



출연: **류철선 교수/호흡기내과**
 프로그램: OBS '특강 아침(애)'
 내용: 폐암의 진단과 치료

친절직원 소개

12월 친절직원

병동간호팀 김선미 간호사 (서 16병동)



늘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나 환자분들에게 좀더 신뢰감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친절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웃음).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친절직원

시설팀 김복희 여사



많은 미화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만 친절직원으로 선정되어 부끄럽기도 하지만 환자분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엄마처럼 친구처럼 환자곁에서 응원하는 미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lobal INHA

이번호는 병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상황에 필요한 영어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pression

->Sad to say, we can only slow the progress of the sickness.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병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을 따름입니다.

Episode

Doctor: You're CKD is at Stage 3.

당신은 만성 신장 질환 3기입니다.

Patient: Am I going to die?

제가 죽습니까?

Doctor: It is not the highest stage yet. But sad to say, we can only slow the progress of the sickness.

아직 말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병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을 따름입니다.

Patient: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하나요?

Doctor: I will prescribe you medicine. Make sure you're taking the medicine as prescribed.

I will also refer you to our renal dietitian for your diet.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꼭 처방한 대로 약을 드셔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식이요법을 위해 저희 신장 전문 영양사에게 의뢰하겠습니다.

Patient: All right.

알겠습니다

★Global Inh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병원에서 쓰이는 영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병원 영어 회화가 있으시면, inhapr@inha.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 890 2604)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 910002 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12년 1월 11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309명	1,085,257,798원	920,857,823원	

◎ 기부자 현황 | 2011년 11월 17일 ~ 2012년 1월 11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액	비 고
11.12.23	현대제철	1,000,000	(완납)
11.12.28	김철호	1,000,000	건강문화CEO과정 4기 원우/메디팜 인하약국 대표(완납)
12.01.02	이창병	10,000	(완납)
12.01.03	남문석	10,000,000	임상시험센터장/내분비내과 교수(완납)

알립니다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분만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2/9(목), 3/14(수) 오후 2시 ~ 4시	3층 1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원내/원외 공개강좌 안내

전시 일정	제목	강사	장소
2012. 03. 08(목) - 오전 11시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	산부인과 송은섭 교수	인천 신세계백화점 내 신세계아카데미
2012. 03. 09(금) - 오전 11시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	외과 조영업 교수	"
2012. 03. 22(목) - 오전 11시	평생 건강관리와 건강검진	가정의학과 이연지 교수	"
2012. 03. 29(목) - 오전 11시	피부미용과 노화예방	피부과 신정현교수	"

●문의 : 신세계아카데미 (☎ 032 430 1501)



갤러리 전시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장소
2012. 02. 04 ~ 2012. 02. 18	임영희 개인전	임영희	2층 갤러리
2012. 02. 18 ~ 2012. 03. 03	김광표 개인전	김광표	2층 갤러리
2012. 03. 03 ~ 2012. 03. 17	오진 개인전	오진	2층 갤러리

●문의 : 홍보팀 (☎ 032 890 2604)



문화 행사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 작가	장소
2012. 02. 23(목) - 오후 2시	새롬문화예술단 음악회	새롬문화예술단	1층 로비
2012. 03. 29(목) - 오후 3시	폴립스플루트앙상블 찾아가는 음악회	폴립스플루트 앙상블	1층 로비

●문의 : 홍보팀 (☎ 032 890 2603)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1600 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 20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 3076
- 종합검진센터 (032)890 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 3300
- 암진료상담실 (032)890 3600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장내과 (☎2200)	박근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월	금	심장혈관센터 (☎2440~1)	신장센터 (☎ 2533)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클리닉과 병행			
	권 준	*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수, 금	월, 화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대혁	*	부정맥, 심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월, 수, 목	수			송준호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우성일	*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술, 고혈압	화, 금	월, 수		신장이식클리닉	김문재	*		수					
	신성희	*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화, 목	목, 금			복막투석클리닉 (☎2535)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수		오후진료 : 13:00~15:30 오전진료 : 10:30~12:00		
	박상돈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화, 목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일 반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수		송준호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일 반						
소화기내과 (☎2224)	김영수	*	간암클리닉, 간질환, 위내시경	월, 화, 목, 금		08:30~09:30 서비스진료 내시경센터 (☎2540~1)	혈액종양내과 (☎2219)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 폐암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 대장질환	월, 수, 목	목			이민희	*	종양학, 혈액학	수, 목	월, 목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이현희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목(목)				
	이도형	*	담도, 췌장질환, 위 대장내시경	화, 목	화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친자확인		
	권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암센터 (☎2580)	김철수	*	혈액종양, 골수이식	화, 목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월, 목	월, 목			이민희	*	혈액종양, 골수이식	월					
	정 석	*	담도암, 췌장암, 담낭증, 담도 확장질환, 위내시경	월, 금	화			감염내과	정문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월, 목, 금		화		
	이정일	*	간암클리닉, 간질환, 간염, 간경변	화, 수	수, 금				이진수	*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화		월, 수, 금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화	수, 금			백지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수, 금	월				
	정현정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금			류마티즘센터 (☎2210~1)	박 원	*	관절염, 골다공증, 류프스	화, 수, 목		월		
	정은선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권성렬	*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월, 목, 금		화, 목		
	민경선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월, 목, 금		월, 수		
	박상현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정경희		관절염, 골다공증	화, 수		화, 목, 금		
	최영철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월			일 반	일 반		월	수, 금				
유성수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월	수, 금							
박현신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월	수, 금							
일 반								월	수, 금							
호흡기내과 (☎2219)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금)	월, 수, 2, 4, 금	() : 주별 진료 ■ 폐암센터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수), 금	수, 목, 1, 3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월, (화), (목)	(월), 화, 목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수), 목											
	남해성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수, 목	(화), (금)											
폐암 센터 (☎3890)	내과	이홍렬	*	폐종양	금		외과 (☎2250)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 여성암센터 △ 비만센터			
		곽승민	*	폐종양	수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월, 목				
		류정선	*	폐종양	화, 목	월			홍기천	*	혈관이식외과	화, 금		목		
		조재화	*	폐종양	화, 목	월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이현규	*	폐종양	월	수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목), (금)		(월)		
	흉부외과	김광호		폐종양	화	목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김정택	*	폐종양	월	목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윤용한	*	폐종양	수	금		허윤석	*	소화기외과, 위	(화)	화, 목				
		정신과	이명훈		불안장애			화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화, 목		금		
		일 반						최유미	*	소이과	(수), 금	월, 수				
당뇨내분비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목), 금	목	비만센터 △ 여성암센터(갑상선조직검사)										
	남문식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화, 수, 목												
	홍성빈	*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수, 목	월, (화), 수											
	김소현	*	당뇨병, 갑상선, 내분비, 비만	월, (수), 금	화, 수											
	이승연		당뇨, 내분비질환		월, 화, 금											
비만 센터 (☎3360, 2215)	내분비내과	김용성	*	당뇨비만(성인)	목		외과	김광호	*	폐, 종격동, 기흉, 다한증	화(목), 목		■ 폐암센터			
		김소현	*	성인비만, 대사증후군, 2형당뇨병	수				백완기	*	심장질환, 혈관질환	금		화		
		박지현	*	여성비만, 신후비만		월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목)		월, 목(목)		
		허윤석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화	수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수(목)		수, 금(금)		
		최유미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수				김재호		일반흉부질환	목		화		
	성형외과	김연수		재활흡입술, 유방축소, 유방하수체교정술, 부부형성술		수			신경외과 (☎2370)	박준은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 사이버나이프센터
		김순기	*	소아비만	금			박형천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김순기	*	소아비만	금			김영은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월(목), 수(목)	월(수), 수(목)	
		이진지	*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월	목		박현선			*	뇌동맥류,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목), 목	목(목)	
		이연지	*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 후 체력증진	월	목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수	월, 수	
가정의학과	일 반				금		윤승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사이버나이프 척추증정증	금	화, 금(목)					
	일 반				금		정준호		뇌종양, 뇌혈관질환, 경동맥질환, 뇌혈관 수술, 뇌혈관질환	화, 금	화, 금					
	일 반				금		일 반			화	목					
신장내과 (☎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목	화	혈액투석진료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금	월, 수, 목	오후진료 : 15:30~16:30										
	송준호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수	월, 목, 금	오전진료 : 08:30~10:30										

토요일 오전진료는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정형외과 (☎2380)	박승림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수		이비인후과 (☎2420)	장태영		* 수면무호흡, 비파,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코성형 : 수요일		
	문경호	*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김영모	*	두경부중양(목), 음성언어(편도x)	월, 화, 목		▲치려움증클리닉		
	김명구	*	스포츠의학(슬관절, 전방관절염, 인공관절성형, 관절염)	월, 수	수			김규성	*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월, 금	수(△)			
	강준순	*	슬관절 인공관절(전방, 고관절(전후측, 전방, 중, 후측)중)	월, 수	월			최호석	*	중이염, 난청, 보청기, 인공와우, 편도	화	수, 목			
	김리섭	*	스포츠의학(전방, 슬관절, 후관절, 추간관, 관절염, 관절염)	화, 목	목			일재열	*	두경부중양, 갑상선, 음성장애, 편도	금	화, 금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월, 금	수			김영호	*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수면무호흡, 비파	수, 토	월			
	이동주	*	상지, 수부, 중앙, 관절염	화, 금	화			최정석	*	두경부,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후두염, 성검, 경성, 구강질환	화, 목				
	김범수	*	족부, 족관절, 외상	수	수, 금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권대규	*	소아정형, 뇌성마비, 중앙, 외상	목	월, 목			정신건강의학과 (☎3880)	강민희	*	정신분열, 우울증, 알콜중독, 노인성정신장애	수, 금	월, 화	우울조율병클리닉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기형, 선천기형, 미용	화, 목	화 (목)		◆술, 안경, 안검조절	김철웅	*	내성 항암화학, 외성성형, 불임, 조기장병	월, 목	수, 목	초기정신병클리닉	
김연수		*	유방재건, 유방성형, 미용수술, 미용수술, 피부미용	월, 수, 금	월(수), 수(목)	*유방재건클리닉	이정성	*	소아정신건강의학과 학습 주의력 장애, 아동장애	월	화, 목, 금	현충리(가)정신건강의학과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만센터(PS 외래에서 진료)	배재남	*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 정신장애	화, 수, 목	월 (목)	▲치매초기검진클리닉			
피부과 (☎2230)	최광성	*	모발, 조각질환, 여드름, 모발이식, 피부과, 레이저	화, (목), 금	월 (화), 목	■모발 및 모발이식클리닉	신경과 (☎3860) 만5세이상 진료가능	하중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신정현	*	아토피피부염, 알러지, 백반증, 두드러기, 피부미용, 레이저	수, 금	월, 화 (금)	◆피부미용외과클리닉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목	월 (목)	◆뇌졸중클리닉		
	송희진	*	백반증, 피부미용, 피부노화	화, (수), 목	(목), 금	◆피부미용외과클리닉		최성혜	*	치매, 기억장애	월 (수), 금	수	◆기억 장애클리닉		
	일 반			월	월(수), 화(목), 화(수), 금	▲홍피/색이저클리닉		배은기	*	뇌전증(간질),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목	월, 화 (목)	◆수면클리닉		
비뇨기과 (☎2360)	서준규	*	성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월, 수	수		재활의학과 (☎2480)	정한영	*	뇌졸중증, 소뇌발달장애, 장애, 뇌성마비	월 (금), 수	수	◆뇌성마비클리닉		
	박원희	*	요실금, 중앙, 전립선질환	화, 금	화, 3	금 오후 : 2번째 진료		김장환	*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노인성경변)	목	수 (수), 목	◆초음파 신경 검출클리닉		
	윤상민	*	중앙, 결석, 신이식	화, 금	화, 1	금 오후 : 1번째 진료		김명옥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수	월, 화, (목), 수	◆뇌졸중클리닉		
	성도환	*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월, 수	수, 4	금 오후 : 4번째 진료		일 반		일반재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수면클리닉(1,3주)		
	이택	*	소아배뇨, 소아 및 성인배뇨장애, 마뇨증	목	월, 목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	가족간담회, 금연	월, 화, 목	화, 수, 금	간진센터	
	류지간	*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비뇨기외상	목	월, 목, 2	금 오후 : 2번째 진료			이연지	*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수), 수, 금	월, 목(수)	▲비만센터	
산부인과 (☎2270)	이우영	*	부인과중양	화, (금)	월 (목), 금	□여성상담센터	국제진료센터(☎2080)		박홍재	*	일반내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연장진료 08:00~19:00	
	이병익	*	중앙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목)	△비만센터			통증치료실 (☎3921)	이두익	*	통증치료	화, 목	화	
	송은섭	*	부인종양	월 (화), (수)	(수)					차영덕	*	통증치료	월, 수, 금	월, 금	
	황성욱	*	중앙학, 복강경	월(목), 목, 금	화					이미현	*	통증치료	수, 목	수, 목	
	박지현	*	주산기이학, 산과초음파	월, 수	월(수), 수, 목			영상의학과 (☎2740)		김원홍	*	HEFU 초음파 치료	월, 수	월 화 수 목	
	박정우	*	부인과중양	월, 수	월 (화), 금					조순구	*	중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여성암센터 외과	이우영	*	부인과중양	금	월, 목		전용선			*	중재적 방사선학	화, 금	화, 금		
	송은섭	*	부인과중양	화, 수	수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	소아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화, 목, 금	월 (목), 목(금)	*사이버나이프센터	
	황성욱	*	중앙학, 복강경	월, 목	화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목	월(수), 목(수), 목(목)	치료중인 환도 시외환부	
	박정우	*	부인과중양	화	화				일 반			금	화, 목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정신과 내분비내과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화, 목	월			사이버 방사선 종양학과 센터 신경외과 (☎3076)	김우철	*	소아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화, 금	화, 금	
		김재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화, 월, 목	화, 월, 목	
김중현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금			박현선		*	뇌종양, 뇌혈관기형	화	목		
김연수		*	유방재건	월(수)	(수)	*유방재건클리닉	윤승환	*		척추, 척수, 원발성종양	금	금			
김영정		*	유방방사선학	수(목)	(수)	■방모통사술	핵의학과(☎3160) 산업의학과 (☎2861)	현인영		*	동위원소치료	월, 화, 목	월, 화, 목		
이명훈		*	불안장애	월(화)	(화)	□중앙스트레스클리닉		임중현		*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령계	화, 목	화, 목		
홍성빈	*	갑상선 검사	화(수)	(화)	△갑상선초음파조각검사	박신구		*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업장 보건관리	월, 수	수				
소아청소년과 (☎2260)	손병관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월	목	만5세까지 소아과외래		김한철	*	직업성질환평가 및 관리, 업무환경평가 업무개선평가	월, 수	수			
	홍영진	*	심장, 감염	수, 목	월	□비만센터		치과 (☎2470)	김일규	*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매식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화, 목	▲임플란트클리닉	
	김순기	*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목				오남식	*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화, 목, 금	월(수), 화(목)		
	전용훈	*	신생아, 미숙아, 발달	목, 금	화, 수		윤정호		*	치주과	화, 목(수), 금	월, 화, 목			
	임대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금	월, 수		정금수		*	구강외과	수, 목(▲)	월, 수, 금			
	김정희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월, 화	수, 금		박찬운		*	보철과	토	월, 수, 목			
권영세	*	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월, 화	목, 금		손성원	*		보존과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안과 (☎2400)	이지은	*	시력저조증, 저시력, 만성 눈안질환, 시정형	수, 목	화 (목), 금	(목)오후 : 비만센터진료 14:00~16:00	응급의학과(☎2301)	일 재열	*	응급의학, 약물중독	월, 목	월, 목			
	박신영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화, 금	월, 화			안과레이저(☎2400)	EYAL	*	레이저 클리닉	금	수, 목, 금		
	오중현	*	백내장, 녹내장	월, 목, 금	화	▲항공기순환원료클리닉									
	문연성	*	망막, 유리체, 포도막	화, 금	수, 목										
	진희승	*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월, 금										
	강성모	*	안성형, 사시	월, 수	목										
김내래	*	녹내장, 백내장	월, 금	월											

최첨단 암 치료기의 새로운 혁명! RapidArc & Cyberknife

RapidArc
Cyberknife



보다 빠르고 정확한 최신기술 방사선 치료장비 래피드아크

래피드아크는 21세기적 치료라고 각광받는 세기조절방사선 치료(IMRT)와 영상유도방사선 치료(IGRT)가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여기에 2007년 개발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치료기술인 종양의 모양에 따른 맞춤형 회전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무혈 | '로봇 사이버나이프'

실시간 종양추적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 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www.inha.com

IGRT센터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방사선종양학과 032)890-3070 신경외과 032)890-2370